

2023 년

#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



제 33 회 <아동·학생의 평화 메시지> 그림부문 중학부 최우수상  
우라소에시립 미나토가와중학교 3학년 스나가와 리리나(砂川 理々那)<오키나와에서 평화를 자아낸다>

일 시: 2023 년 6 월 23 일(금) 오전 11 시 50 분~오후 0 시 40 분

장 소: 평화기념공원(이토만시 마부니)

오 키 나 와 현    오 키 나 와 현 의 회



## 2023 년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 식순

- |   |            |                         |
|---|------------|-------------------------|
| 1 | 개회사        | 오키나와현 부지사               |
| 2 | 추도식사       | 오키나와현의회 의장              |
| 3 | 묵념         |                         |
| 4 | 추도 말씀      | 오키나와현 유가족연합회 회장         |
| 5 | 헌화         |                         |
| 6 | 평화선언       | 오키나와현 지사                |
| 7 | <평화의 시> 낭독 |                         |
| 8 | 내빈 인사      | 내각총리대신, 중의원 의장, 참의원 의장  |
| 9 | 폐회사        | 오키나와현 부지사               |
| ◆ |            |                         |
| 1 | 종합사회       | NHK 오키나와방송국 아나운서        |
| 2 | 수화통역       | 오키나와현 신체장애자 복지협회등록 수화통역 |

## 추도식사

오늘 이곳에 기시다 후미오 내각 총리를 비롯해 중의원·참의원 의장, 내빈과 유족분들이 자리해 주신 바, 모든 희생자의 영령에 대해 삼가 애도의 뜻을 올림과 더불어,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애석한 마음을 전합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이곳 오키나와 땅에서는 일반 주민을 희생시킨 처참한 지상전이 있었습니다. 철의 폭풍이라고 불리는 격렬한 공습과 함포사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가 내리듯 탄환이 쏟아져 도망치던 주민을 덮쳤고, 전쟁구역과 주민이 몸을 숨기는 피난 구역을 구분하는 의미도 사라졌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은 인간 추함의 극치라고 불리며, 이를 계속해서 전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에 끌려 온 오키나와의 젊은이들은 스스로가 받은 교육을 믿으며 밝고 활기찬 일상이 금방 돌아올 것을 의심치 않고, 점차 전장으로 바뀌어가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자신에게 지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원한도 없으면서 국가 간 분쟁에 희생되어 소중한 목숨이 다하게 된 것은 인류 최대의 불행일 것입니다.

78년 전의 오늘, 오키나와 전투는 조직적인 싸움을 끝낸 것으로 여겨져,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27년에 걸쳐 미국 사회, 그리고 작년에 50주년을 맞이한 일본 본토 복귀의 시대를 모두 겪으며 곳곳이 살아가게 됩니다. 노래와 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류큐 문화는 자취를 감추고, 초토화된 섬을 걷는 사람들의 표정에서는 활기가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인간이 아니게 되는 세계를 체험한 생존자로서, 온갖 심신의 병을 견디고 서로 지탱하면서 아직 보지 못한 오키나와의 미래를 있는 힘을 다해 키워왔습니다.

요즈음에 내리는 비는 오키나와의 푸르고 아름다운 바다와 선명한 색으로 빛나는 풀과 꽃에 있어서도 무척 중요한 축복입니다. 평화로운

때에도, 전쟁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똑같이 내리는 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억이 됩니다.

비가 내리면 전화가 울린다.

오늘은 비가 내리네.

오키나와 전투의 생존자는, 이 시기에 비가 내리면 당시를 떠올리며 자신이 살아남게 된 의미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져, 마음 가는 이야기꾼에게 말을 겁니다.

또한, 이 비는 완전히 바뀐 대지를 재생하는 것과 같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파초나무 한 그루가 옷감이나 종이가 되는 것처럼, 오키나와의 축복으로 자아내는 것은 세계를 비추는 평화의 빛이 될 것임을 이해하고 그 토지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증거를 계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핵무기 위협이 임박해 있으며 지상전 또한 마찬가지로 현실이 되어 버린 와중에, 처참한 지상전에서 살아남은 우리들 오키나와 현민은 이와 같은 일이 세계에서 반복되는 것이 비극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를 바라는 것이 의미 없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자애의 본질이 슬기임을 자각하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기억이 빛의 영혼이 되어 세계 평화로 향하는 길을 비추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계속해서 되묻는 것이 진정한 위령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여러분들의 평화를 위하는 마음과 함께, 다시금 전쟁이 없는 세계적인 항구 평화 확립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임을 여기서 굳게 맹세드리며, 추도식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오키나와현의회 의장 아카미네 노보루

## 평 화 선 언

1945 년, 지금으로부터 78 년 전,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반 주민을 휘말리게 한 비참한 지상전이 펼쳐졌습니다.

90 일에 걸친 철의 폭풍은 섬에 있는 산의 모양을 바꾸고, 풍요로운 자연과 적지 않은 수의 문화유산을 파괴하였으며, 20 만여 명의 존귀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오키나와현민은 지상전에서뿐만 아니라, 남양군도의 인양선 격침, 학동 피난선의 희생, 10·10 공습, 학동이 전쟁에 동원된 점, 전쟁 말라리아를 비롯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매년, 6 월 23 일을 맞이할 때마다 전쟁 체험자가 말하는 전쟁의 부조리함과 잔혹함을, 후세에 계속해서 전해 온 실상과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온갖 전쟁을 증오하며 두 번 다시 오키나와를 전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의를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전쟁 이후 27 년간의 미국 통치를 거쳐 1972 년에 본토에  
복귀한 뒤로 51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주일미군전용시설면적의 약 70.3 퍼센트가  
오키나와현에 집중되어 항공기 소음을 비롯해 수질과 토양 등  
환경오염, 항공기 사고, 미군·군무원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 등,  
현민 생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현은 주오키나와미군기지의 추가적인  
정리·축소, 일미지위협정의 근본적인 개선,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과 조기 폐쇄·반환, 헤노코 신기지  
건설의 단념 등 기지 문제의 해결을 오래도록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12 월에 각의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및 “방위력정비계획”에 있어서, 오키나와의 방위력 강화와 관련된  
서술을 다수 엿볼 수 있는 탓에, 가혹한 지상전의 기억과 맞물려  
현민 사이에 커다란 불안이 생기고 있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  
외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나려 하고 있으며 지금도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현민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정전이 실현되어, 평온한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생명, 지금 남아있는 문화, 자연환경, 이것을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과 자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공유하는 바람임이 분명함을 서로 확인해 갑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계국과의 평화적인 외교와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신뢰 양성,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현민·국민의 이해와 행동이 지금보다 더욱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광, 경제,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평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국제교류를 통해 오키나와현이 쌓아 올린 네트워크를 최대한으로 활용한 고유의 지역 외교를 전개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구축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이곳 평화기념공원에 “오키나와 평화기념자료관”과 “평화의 초석”을 건설해 전쟁에 희생된 수많은 영령에게 애도를 표하며 오키나와 전투의 역사적 교훈을 올바르게 다음 세대로 전하여 세계 항구 평화를 오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여러 세대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로 이어지는 일상적 사회공헌활동에 주목한 <츄라우치나-풀뿌리 평화공헌상>이나, <오키나와 평화상>을 통해, 평화를 희구하는 “오키나와의 마음”을 세계에 알리는 것과 동시에 오키나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 사이의 가교, <만국의 진량万国の津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폭력이라는 신념을 관철한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오직 평화만이 길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평화”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닌, 빈곤, 폭력, 인권 억압, 차별, 환경 파괴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평온하고 풍요로운 상태이며 오키나와현이 널리 알리는 “오키나와의 마음.치무구쿠루(오키나와 방언으로 “진심”)”에는 인간의 존엄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인간의 안전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현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있어서도 부당한 차별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함과 더불어, 사람들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하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상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오키나와에서 세계로 평화의 배턴을 전달해 핵무기 폐기, 전쟁 포기, 항구 평화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